

신앙란 안에
창국일로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1:21)

대한민국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정환 편집: 양재웅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8)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렘 20:9). 그러나 아직도 침묵하며 조용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미 은총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셨습니다. 현재 38개팀 34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중인 팀과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팀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500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구본된 소수의 특정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기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막 16:15).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골 2:6-8).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빛진 자(롬 8:12)로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땅 끝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선교위원회를 비롯한 전 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영적 힘의 근원이 되는 선교기도회(매주 주일 오후 4:00~4:30), 매월 두 주에 걸쳐 실시되는 CMTC 훈련(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오후 6:10~8:10),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현지언어훈련(매주 주일 오후 3:00~3:50) 뿐만 아니라 팀장훈련, 팀원훈련, 영성훈련 등 모든 분들의 마음은 한결 갑니다. "십자가의 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다른 복음이 없다(갈 1:7)고 단언했던 바울처럼 모든 충현의 일꾼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듣고, 회개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순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수요일은 교회주변 전도의 날

아직도 주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방법만을 찾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고전 1:22). 그러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전도의 미려한 방법이었습니까(고전 1:21).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시험은 전도 방법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눅 4:1-13). 사단은 복음을 전하되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으로 입증한 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먼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니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니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혐오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합니다(갈 6:14).

현재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예수님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주변 전도를 통한 1:1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드려 수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자원하는 믿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둘째 수요일(4월 13일)은 전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 뒤 교회주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전도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해서는 안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15:4를 찾았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하며, 일단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쉬임 없이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막 1:38).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날마다 전도하였습니까(행 5:42). 그리고 우리 충현교회도 쉬임없이 전도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한 전심전력 전도가 이어지도록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거기 때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도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때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

오늘(3일)

제5차 CMTC

훈련 안내(첫째 날)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충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오후 7:10~7:40)	갈릴리움
	전도 특강	(오후 7:40~8:10)	갈릴리움

충현동산에 심겨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을 소망하는 충현동산이 아름다운 나무들로 더욱 푸르러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4월 5일) 식목일에 자두, 양살구, 매실, 복숭아, 호두, 대추, 잣나무 등 유실수 약 380그루를 충현동산에 심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를 심는데 100여 명의 안수집사님들께서 자원하여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유실수를 구입하는 데는 컨시와와 고 김천재 장로님 가족들의 따뜻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 유함을 깨뜨렸던 마리아(요 12:3)와 그리스도의 몸을 제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벧전 5:2)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는 일과 충현동산 청소 및 주님 정리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은 4월 5일 충현동산으로 오시면 됩니다(교회버스 출발은 오전 6:00). 충현동산이 천국을 소망하는 곳인 것처럼 충현동산에 심을 유실수를 볼 때마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전로 파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

* 오늘

4부 예배 후

장로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세례교인

이상)

수요성경공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8)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막 1:1).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 속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갈 1:7).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요성경공부를 통해서 성경 속에 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행편을 고려하여 수요일에만 개설하되, 오후반과 저녁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후반은 3:00~4:30까지 모세오경에 타난 예수 그리스도(루복의 묵사, 제1요한 3:7-10), 역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안창경 묵사, 제2요한 4:7-10)가 개설되어 있으며, 저녁반은 저녁 8:30~10:00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조규호 묵사, 제1요한 3:7-1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는 제직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수요성경공부의 학제인수를 신중히 고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시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수요성경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은 들은 들에서 나며 들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GET UP AND GO

***“But an angel of the Lord spoke to Philip saying,
“Arise and go south to the road that descends from Jerusalem to Gaza.”
(This is a desert [road].)” (Acts 8:26)***

When Jesus sent the Holy Spirit to dwell in the hearts of all believers, the Christian church began to grow. Unfortunately, with its growth came severe persecution. After Stephen, the first martyr, was stoned outside the walls of Jerusalem, Christians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 still living and spreading the Gospel. Philip went down to Samaria, a Gentile city, to proclaim Christ. His preaching caused a major revival, where the people not only heard God's word, but also saw its miraculous power. God used Philip to heal the paralyzed and lame, and cast out unclean spirits from many people. In the climax of all these wonderful transformations, a strange thing happened, an angel of the Lord came to Philip and said, “Get up and go south to the road that descends from Jerusalem to Gaza”(8:26). God called Philip away from a highly populated area, where He was saving many people, to a vastly isolated area, a desert road, where people only passed by. This was a difficult calling. Philip had to leave a place bright in opportunities, a place where he was valued and successful in God's work and go to a remote location dull in possibilities, where he would be thankful to meet one person.

Luke, the author of Acts, was a scientifically minded man, a physician who used logic and reason to rationalize events. He clearly noted the appearance and acts of angels in God's doings (see Acts 7:30&35), especially after Pentecost (see Acts 12:7&23). He also observed how angels of the Lord and the Holy Spirit work together, as in Philip's case. In today's Bible verse, the angel of the Lord directed Philip to a certain road, “Get up and go south to the road that descends from Jerusalem to Gaza”. Once there, the Holy Spirit directed him to a specific vehicle, “Go up and join this chariot” and “snatched” him away to another city (Acts 8:29&39). The angel of the Lord and the Holy Spirit both directed Philip in God's work. Their communications with him were clear.

Philip's messages from the angel and Spirit directed him concerning where he was to go, but neither explained why he had to go. The same thing happened to Abraham,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Gn. 12:1). Hebrews 11:8 tells us that,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called, obeyed by going out to a place which he was to receive for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Heb. 11:8). God told both Abraham and Philip to get up and go, He directed them, but He did not give them explanations. This is God's way. Philip started a new church in a big city where the people rejoiced in Jesus. Everything was going so well, when out of nowhere the angel of the Lord told him to get up and go to a desert road. How willing would you be? You can imagine Philip thinking that God needs him here, and wondering why there.

Philip, like Abraham, obeyed God's call because he trusted Him. If you do not trust God, you cannot obey Him. When God told Philip to get up and go, he got up and went. It did not matter where, whether a

desert road, prison, or lion's den. What mattered is what the Lord said to do. When Jesus called to Peter and Andrew,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they immediatel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Mt. 4:19-20). It takes faith to move. Servants of God must follow the Holy Spirit's direction. Philip listened. He went to the Gaza road, he climbed into the chariot, and he let the Holy Spirit whisk him away. Even though he had become an important man in Samaria, he still left. It was not easy, but he continued to follow Jesus.

Our church sends out short-term missionaries throughout the world. We must go without hesitation, without a plan, and without our way of thinking. We need to listen to the Holy Spirit. We need to hear His voice, so that we can follow and obey, not by our calculations, but by faith. We need to trust God completely, so that He can use us. We need to pray to hear His voice. His plan is always better and stronger than our expectations. Philip never asked why he had to give up a beautiful revival in order to go to a desert road. He never asked whom he was supposed to meet. He just followed Jesus. Whether He leads you underwater, overseas, or above the earth, you need to give up your way and follow Him. The Master will surprise you. Please throw away your thoughts. Your love, power, and abilities are limited. Romans 10:12 says,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The Lord will provide everything to those who call on Him!

My dear friend, Jesus is the Son of God. He talked the earth into existence. Indeed, He can easily do everything without us, but that is not His way. The Bible shows us that He works through us. He called Philip, the fishermen, a tax collector, and a woman possessed with seven demons, so that He could work through them. He always works through us. God gave Jesu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and with it He call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Mt. 28:19). Philip went to the desert road, got in the chariot, and talked with a prime minister from Ethiopia about Jesus. The man was reading the Old Testament. Philip asked him,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The man replied, “Well, how could I, unless someone guides me?” Then he invited Philip to come up and sit with him. What amazing grace, all because Philip followed the Holy Spirit. He shared the gospel with one man, a man who could take it back to his home country and share it with millions.

Jesus wants to send you somewhere for His work. If you listen to Him, and get up and go, you too will meet some wonderful soul that He has prepared to receive Him. There are so many blessings waiting for you, if only you move. Please open your heart and listen to the Lord's voice. Do not wait for explanations, but listen for directions. The Lord will give you exact directions. Get up and go where He shows you.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행 4:15~22)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들에게 복을 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사도가 군중들 앞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설교하는 데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아 끌고 갔다.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문 되었으므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런데 두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새로 믿은 사람들은 남자만도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의 공회하 소집되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행 4:1-6).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나 정작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진 않았다.

자신들의 잘못함을 가리기 위해 급급하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말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행 4:16).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못 망명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들어 날카로워졌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였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며 군중들을 가르쳤던 종교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였다. 반면에 제자들은 당시 종교지도자들처럼 세상적으로 내세를 만한 것이 없었다. 이들에게는 오직 부활의 신앙만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제자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한 가지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방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행 4:17). 사탄의 지혜는 복음을 희롱해 하는데 뛰어나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혼란시킨다.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게 만든다. 제자들을 해하려면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풀어주게 된다(행 4:22).

인간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의 결정. 제자들을 풀어주면서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을 협박한다(행 4:18).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참 신자의 마음에는 말씀이 살아 있어만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하고도 핍박하고 거역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며 욕한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마 10:22). 신앙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고난의 길이지 인정과 존경받는 길이 아니다.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 바울은 황소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온유의 빛과 바울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 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 없이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회개하라!

그리스도는 명명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을 선포하였다(행 4:19,20).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선교의 모습은 단기선교이다. 또한 단기선교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라 하나님!”(빌 1:20)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참 권위자인 주님 안에 있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명명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불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핍박을 받고 있는 참 신자에게 이 말씀은 은사로 다가온다. 말씀만을 의지하지, 믿음이 정답이다(고후 4:13). 성령이 임하시면 침묵할 수 없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끝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온종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요일 1:1-3).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만족해야 한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예수로 나의 구주상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나...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원한 주만 보이도다”(산 20:4장).

장로 칼럼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건국위원회

김 광 남 (전국학원장)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오까지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채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전 15:12,1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열마나 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할렐루야”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청지기 훈련은 우리를 더욱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음을 묵상해 볼 때 참으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땅방울이 땅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갱새마네가 나의 삶 가운데로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사시리라”(마 6:33).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묵상해 봅니다.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언으로서의 삶! 복음의 중언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자기를 부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아야 한다는 전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도의 위에 세워진 충현교회는 더욱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임당예배를 드린 지 20년이 되었기에 개·보수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듯 더욱 세심히 교회를 살펴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한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버타운 및 요양원 건립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여 있으며 충분한 중증을 가진 후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연로한 많은 어르신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국내외의 우수한 곳을 답사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산·광덕산 일대 공 사적할 곳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현기도원과 충현동산에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도 공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오직 십자가만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건축위원회가 되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모두가 교회의 시설물을 아끼며 유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사와 계획하고 있는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가는 단기선교였습니다. 전역 후 학교에 다니느라 교외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단기선교 갈 계획이나 단기선교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단기선교였는데 저희 팀장님이 가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외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궁금함으로 결정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틀렸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위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쉽게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선교를 더욱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 모임과 언어 훈련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망과 걱정도 생기고 기대로 커졌습니다. 안 가던 새벽기도에도 다시 나가게 되었고 선교 준비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을 처음 뵈을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반겨 주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팀원들은 현지 이름을 하나씩 지었는데 이름을 소개할 때 그들은 좋아했고 한번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전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전도지를 끝까지 다 읽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아드렸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경건회 시간에 우리가 사역한 지역을 위한 기도제목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이런 기도가 아니면 주님을 알 수 없는 기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저보다 주님을 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회개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팀원들의 모습을 통해, 현지 사람들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대학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

최근 중에 피수인 저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항상 저의 기쁨이었고, 저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마 28:18-20)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단기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제가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깨뜨리시는 성령님의 은혜(행 6:8)를 통해서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였습시다.

제가 사역했던 곳은 동사남북 보이는 곳마다 우상을 새긴 조각과 그들의 사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서도 주님은 그의 백성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숨겨진 당신의 자녀를 찾아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기쁨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가정부터 시작하여,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고, 하루하루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없이바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선 예수님의 마음(눅 15:4)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은총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결실을 위한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쓰이기 위해 보내신 선교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간이었다. 사역지의 낯선 생각 이상으로 덥고 습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의 체력만을 믿고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이곳저곳 답사를 전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너무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즐겁고 감사했기 때문에 힘이 드는 줄도 몰랐고 매 순간마다 ‘야벤’이라 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하루가 지나고, 사역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몸이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더위에 지치고, 열은 감기 기운이 몸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그 곳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도 점점 작아져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이 나라까지 보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였기에 힘들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사역지까지의 이동은 너무도 힘들고 지친 발걸음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즐겁고 힘이 솟았다. 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미열이 지속되었지만 그 곳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매 시간 시간이 정말 감사의 순간이었다. 사흘, 나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지쳐 있던 나의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편히 누워서 쉼 것도 아니고 병원을 찾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뿐인데 약화되기도하는 점점 좋아지는 나의 건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정말로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주께서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구나.’ 사역 기간 동안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본다. 만약 내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면, 그래서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들 중에는 내가 전하지 못함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말씀과 한눈도 접해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많이 아쉽기도 하다. 더 많은 이를 만나지 못하였고, 좀더 많은 씨앗을 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아쉬움에도 우리가 몰라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못 다한 일을 완비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곳에서의 나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 주께서 그들을 지키고 이끄시도록 기도하는 일, 그곳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잘 재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주님을 대신하여 뿌렸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기도한다. 그 싹이 정말로 참되고 바르게 자라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도 더 아름답고 진실된 열매가 그곳에 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손길일 것이다.



이복희 (대학부)

현재 복음을 알고 믿지 않은 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을 전하는 일에 한 사람의 방관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전 1:17).

이복희 (권사, 11교구)

★ 이번 주 출몰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4일(월) - 4월 12일(월)	8교구 3지역	박성길	4월 6일(수) - 4월 15일(금)	14교구 3지역	이성탁
4월 5일(월) - 4월 15일(금)	12교구 2지역	조문수	4월 6일(수) - 4월 15일(금)	11교구 1지역	김민술
4월 5일(월) - 4월 15일(금)	1교구 3지역	구원식	4월 7일(목) - 4월 16일(목)	13교구 2지역	강신현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3월 28일(월) - 4월 5일(월)	11교구 6지역	박성명	3월 21일(월) - 3월 30일(수)	17교구 4지역	차창숙
3월 28일(월) - 4월 6일(수)	15교구 5지역	조성훈	3월 21일(월) - 3월 30일(수)	18교구 3지역	고승균
3월 28일(월) - 4월 7일(목)	직원4	서준성	3월 24일(목) - 4월 1일(금)	청년부1	이종환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예수님은 기본도 깨끗해요”

전아셀은 예쁘고 씩씩한 여섯 살배기 공주랍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아빠: 아셀, 아셀은 누가 좋아해요?

아셀: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요. 예수님은 기본도 깨끗해요(?) 좋아요.

아빠: 아셀,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아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때요?

아셀: 예수님과 같이 살면 좋아요.

아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아셀: 아니요.

아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대요. 그리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아셀: 아!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요.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

는 사람들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그치 아빠? 부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아빠: 천국에 가면 어떤 것 같아요?

아셀: 좋아요. 예수님이랑, 아빠랑, 엄마랑, 셀라, 아른 친구들이랑 행복해요. 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작 맛있는 양식이 있을 것 같고 꽃밭도 있을 것 같아요.

아셀이 좋아하는 베리베리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어려운 인터뷰를 마칩니다. 아빠와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어린 딸의 모습 속에서 작은 천국을 느낍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전아셀 (유지부)

일상에서 예수님을

어머니와 저는 노약자석 앞에서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점잖으신 분이 어떤 청년에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에 쏙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들어 보았어요.

“예수님은 자네를 사랑하시고 자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네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네. 그분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네. 자! 이것을 따라 읽어 주겠나?”

그리고 그 청년의 입을 통해 사영리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 순서에서 순순히 따라가던 청년은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어린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참 착한 청년이예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분을 미친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단 따른 것 같았는데 그러한 성품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분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교회에 나가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신 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어요. 그 이후의 다른 사람의 명령한 시선과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그 모습.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음 사람을 찾아서 계속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귀한 자리에 그리고 귀한 순간을 목격해서 어머니와 저는 가슴이 참 따뜻해졌어요. 아직도 그분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요.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닌 하나님께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일러 주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모습은 보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에 연이어 저희 어머니는 바로 전도를 실행에 옮기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순간 전도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저 없이 충현교회에 나오라고, 지금 교회에 가는 집인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청년이 처음엔 웃다가 그리고 다음에 가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충현교회의 대학부도 소개하셨고, 일벌결에 정말로 통성명도 했어요. 그 지하실에는 한 30~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던 청년은 그 자리에서 40분의 1의 확률로 백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영혼을 구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분의 삶이 참 귀하겠죠? 저도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종근 (대학부)

부활의 예수, 은총의 자녀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처음엔 나도 부활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적 중의 이적이라고 믿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때 말 그대로 기적이랄 수 있겠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우리들에게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세상 깨달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라 약속받은 우리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정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부활, 곧 믿는 자들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예정된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부활이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작은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망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고전 15:14). 우리를 위해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활을 하나의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이 당연하다고 해서 대충 생각해보고 어설프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어떤 의미로 자리잡고 있는지 되새겨 보았다. 예정되고 약속된 우리의 부활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박진수 (고등부)

박유신 ♥ 김옥희 부부 (세가족부)



김옥희 성도는 천정 부모님이 모두 교회에 다니셨으나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 후에는 마음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중 큰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할 때 집 근처에 사시던 고모님의 전도를 받았다. 처음에는 철을 가끔 찾던 남편에게 말도 못 꺼냈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하였고 남편이 이를 순전히 받아들여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 박유신 성도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전에 절에 다니던 습관이 있어 자주 ‘판 세움보살’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떠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온다고 한다. 본인이 장남이라서 재산 문제로 집안에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믿기로 하였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믿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감사하다.

교회탐방 58 교구위원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알아 가는 일이 힘들게 느껴져
외로울 때가 많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구위원회를 나
끼리 하기엔 너무 먼 곳으로 생각했다. 반면에 교구간
사들은 왜 성도들은 간사실에 안 올까? 하며 간절하
게 성도들을 기다렸다면 이것은 서로간의 명백한 오해
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간절
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싶었다.
간사들의 뜨거운 구애(求愛)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교구위원회의 역할은?

이들테만 심장이 죽으면 세포조직이 병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구가 죽으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구는 교회의 연결 통로이지요. 교구위원회는 교회의 성상 부흥에 장애가 없도록 교구를 살피면서 5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협력기관입니다. (김은호 장로, 위원장)

교구위원회의 구성은?

교회 안에는 19개의 교구가 있고, 각 교구에는 교구장 장로를 비롯 지도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남녀 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적으로 교구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은호 장로)

교구 활동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총괄하시는 일의 행정적 업무를 돕습니다. 이를테면 교적 관리나 인사, 개인 심방 및 상담을 지원하지요. (장철환 장로)

전도와 선교라는 교회의 주력사업의 맥락에서 일과성을 갖고 교구위원회가 협력하는 부분은?

선교와 전도를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선교지침이나 전달사항을 홍보합니다. 19분의 교
구장 회의에서도 선교, 저도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연수 안수집사)

새가족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교구마다 양육부장이 있어 그 일을 담당합니다. 새가족이 등록하면 심방을 하고 교구부장들이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에 따라 교회의 여배를 안내하고 또 심방하여 권면하며 새신자를 양육합니다. (이수자 권사)

각 위원회의 밑바탕을 든든히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구입니다. 구역과 지역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먼저 새가족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구에서는 먼저 구역 안에서 새가족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기원기 자료)

가사들께서는 교구를 돕기 위해 주중에도 주파수를 교구에 맞추어 놓고 살 터인데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들을 보면 기뻐하는 마음일까요? 그래서 엄마처럼 자리를 지키는 일에 비중을 둡니다. (박미수 직사)

실행위원들이 하는 일은?

교구에서 제출된 모든 통계를 수합하여 자료로 보관하며,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제공합니다. (김지은 실행위원)

전체 교구의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각종 교회의 사역을 돕습니다. (임역수 안수집사, 실행위원)

가사들이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사실은 성도들의 교제의 장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오십시오. (조종민 안수집사)
성도들을 위해 간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언제나 이용하십시오. (태
명자 권사)

간사들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기다리듯 애타게 교구 식구들이 찾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구는 작은 교회입니다. 초신자는 간사를 통해 교회를 알아 가기 바랍니다. (장철환 장로)

교회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교구에서 확고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
이 교회의 힘이며 5대 목표를 이루는 그가입니다. (김요호 장로)

그 동안도 성도들을 위한 교구위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 동안 교구위원회의 문은 굳게 닫힌 문이었다는 오해를 풀고 주일마다 교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자. 교회 안에 우리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기쁘다.

(*교구 감사실은 제1교육관 2층에 있습니다.)

(퍼진식)

■ 다음 주일 찬송 ■

조은초임은 조드미

매리 코넬리아 비숍 게이트 여사(Mary Cornelia Bishop Gates, 1842~1905)의 찬송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소개된 선교 찬송이다. 작곡은 에드윈 드류웰(Edwin Drewett, 1850~1924)이 담당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선하신 상태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시어 관할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고 타락했고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 이런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가 모든 구원을 이루었고, 이 놀라운 소식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

1절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의 종들이 전하러 나가야 하며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어디든지 보내달라는 간구이다.

2절은 주 예수 믿고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이 세상 끝 잃어버린 무리를 찾으러 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3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믿음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명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4절은 이 놀라운 복음 전도 사역을 해-남의 말짱과 성령감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주께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내용이다.

지금 이 땅 위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처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주의 사자들이 복을 들고 찾아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 천당은 복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천국의 성도들이 힘입어 불타야 할 창양이다.

천안위원회

새·가·죽·을·환·영·합·니·다

연도	성명	교구 소속서명	연도	성명	교구 소속서명	연도	성명	교구 소속서명	연도	성명	교구 소속서명
906	장동진	13 장동진동	924	최희문	1 장신동	958	이희진	19 외산동	984	전현진	12 소양동
907	신창환	10 장동동	933	이동진	19 장동동	959	이희진	19 외산동	985	김영진	12 소양동
908	이두진	3 장동동	934	이희철	19 장동동	960	김영	19 외산동	986	김무성	2 대북동
909	유영환	4 장동동	935	김동현	14 장동동	961	이희진	19 외산동	987	홍성진	2 장신동
910	이현영	19 장동동	936	조희진	14 장신동	962	김기영	19 장신동	988	김소영	19 장신동
911	경지영	15 장동동	937	김영부	3 장신동	963	이희진	19 장신동	989	김지영	19 대북동
912	백정환	15 장동동	938	서창희	3 장신동	964	유수영	19 장신동	990	김도기	2 장신동
913	변석진	4 장동동	939	유영준	3 장신동	965	최희진	19 장신동	991	최희진	2 장신동
914	이희진	9 장동동	940	김영진	5 장동동	966	황희진	3 장신동	992	김영희	2 장신동
915	이영환	15 장동동	941	김순철	6 장신동	967	최희진	4 장동동	993	김동욱	19 대북동
916	유영진	19 장동동	942	김영진	10 장동동	968	김영진	19 장동동	994	김영진	19 외산동
917	유영진	19 장동동	943	신창희	1 장신동	969	전현진	12 장동동	995	이희진	19 외산동
918	김정신	19 장동동	944	김영진	19 장동동	970	변영숙	3 장신동	996	이희진	19 외산동
919	이영진	19 장동동	945	김희진	1 장신동	971	이희진	3 장신동	997	김영진	15 장동동
920	김현수	19 장동동	946	박영진	7 장동동	972	최희진	3 장신동	998	김영진	16 장동동
921	서재희	1 장신동	947	이영숙	10 장동동	973	전현진	1 장신동	999	김영진	13 장동동
922	이희철	16 장동동	948	김영진	9 장동동	974	전현준	1 장신동	1000	김영진	13 장동동
923	김정신	13 장동동	949	민지희	19 장신동	975	박영진	12 장동동	1001	김영진	14 장동동
924	백지영	8 장동동	950	정영진	19 장신동	976	박영진	12 장동동	1002	김영진	12 장동동
925	김영진	13 장동동	951	이희진	10 장동동	977	전현진	19 장신동	1003	장영진	3 장동동
926	홍희철	2 장동동	952	이희진	13 장동동	978	민지희	19 장신동	1004	김영진	1 장신동
927	전현진	18 장동동	953	신창희	10 장신동	979	김영진	12 장동동	1005	김영진	12 장동동
928	김영진	2 장신동	954	최희진	19 장신동	980	이영진	19 장동동	1006	박영진	16 장동동
929	김영진	3 장동동	955	김영진	3 장동동	981	김영진	3 장동동	1007	김영진	19 대북동
930	조영진	12 장동동	956	김영진	8 장동동	982	신창희	3 장동동	1008	김영진	19 대북동
931	이영진	19 장동동	957	김영진	19 외산동	983	김영진	12 장동동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알림

1. 수요일 예배, 금요일 아침예배
시간 변경
저녁 7:00에서 저녁 7:30으로 변경
합니다. (4월 1일 금요일부터)
2. 수요일성경공부 재배반 시간 변경
저녁 8:00~9:30에서 저녁 8:30~10:00
로 변경합니다. (4월 6일부터)

모임

1. 정기 담회
일시: 6월(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안수집사 4월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1교회 - 제1교육관 501호
2교회 - 제1교육관 507호
3교회 - 제1교육관 영아부실
4교회 - 제1교육관 408호
3. 권사 12교회 월례회
일시: 6월(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갈릴릴

별세

1. 김관섭 성도 김경희 집사의 아들,
2교구 성년1구역 / 3월 24일 별세,
3월 26일 장례
2. 한용삼 타교집사 한명자 성도의
부친, 7교구 천호2구역 / 3월 28일
별세, 3월 30일 장례
3. 김갑남 성도 이영숙 집사의 남편,
13교구 화곡2구역 / 3월 28일 별
세, 3월 30일 장례
4. 윤병삼 씨 박성숙 성도의 모친, 김
석하 성도의 장모, 9교구 / 3월 30
일 별세, 4월 1일 장례

결혼

1. 이종철 군 (이갑재 장로, 한승민
관사의 아들, 15교구)과 이윤신 양
(이민재 성도, 김경현 성도의 딸,
사랑의교회) / 5월(일) 14:00 갈릴
릴
2. 안성태 군 (송형식 은퇴관사의 손
자, 10교구)과 이선민 양 (이종식
성도, 임연숙 성도의 딸, 태교회
/ 18교구) / 5월(일) 14:00 뉴힐탑호
텔리당을 3층
3. 이학진 군 (이경희 타교집사, 정숙
희 타교관사의 아들, 19교구)과 김

주일 식당 이용 안내

신성한 예배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시간: 매주일 오후 2:40까지

◆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안내

일시: 4월 6일(수) 오후 2:40 예배 시 장소: 본당
참석대상: 1. 2. 3. 교육위원회 소속 모든 교사

◆ 2005년도 상반기 사회교회소 개강

일시: 3월 27일(주일) ~ 7월 31일(주일)
시간: 오후 3:15 ~ 4:30 장소: 제1교육관 207호

◆ 증언전도대원 훈련

일시: 3월 16일(수) ~ 5월 4일(수)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 장소: 베다니홀

◆ "만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시: 4월 13일(수) 오전 11:00
대상: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심)
진행: ① 수요일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여전도회 월례회
④ 교회주변 전도 실시

- 정숙 양 (교원재 장로, 김은희
관사의 딸, 1교구) / 7월(일) 17:30
삼성동 공평타미네식당
4. 김명근 군 (김태희 성도, 오덕수
관사의 아들, 8교구)와 임수미 양
(이종희 씨의 딸, 19교구) / 8월(일)
5. 김형원 군 (이순열 씨의 아들과
조반이 양 (조동식 집사, 김진자
관사의 딸, 6교구) / 9월(일) 15:30
잠실 항공회관 1층 북실 ☎
02-424-8600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10(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박흥규	이창수/윤성열	윤수일/윤선한	황진성/장철환	정성영/장금줄	이종태/홍순애	조규호/함성임

예배담당 안내 (4/6~4/10)

날짜	예배	찬 양	장 소	설 교
4/6	수요 I	내 평생을 가는 길 (호산나 찬양대)	정현민 김승욱	베드로의 설교 (행 2:36-38) 김성관 목사
4/6	수요 II	갈라디 십자가에서 주 불들게 (실로암 찬양대)	김영훈 조종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요 21:1-14) 양계용 목사
4/8	금요일초	소프라노 류승민/선교중앙단	장 훈	김성관 목사
4/10	주일 I	(예배전 찬양)	황진성 장철환	일어나 가라 (행 8:26) 김영훈 목사
4/10	주일 II	나 죄송해 해마다 외갓집 백이영(아연 오케스트라)	장 훈 강경희	일어나 가라 (행 8:26) 이성진 목사
4/10	주일 III	이웃 받으시 되라니 김명부, 바리새 오성익(한울루아 찬양대 솔리스트)	정현민 김명수	일어나 가라 (행 8:26) 김성관 목사
4/10	주일 IV	네가 내일 기쁘게 외갓집에 오실것이니(지도: 김남숙)	이형수 이영숙	일어나 가라 (행 8:26) 최종철 목사
4/10	주일 V	귀하의 주님만 믿는 외갓집(소프라노 김민우(멜빌 찬양대 솔리스트))	윤수일 황이만	일어나 가라 (행 8:26) 이창수 목사
4/10	주일찬양	송현 장로중앙단/밴드퍼레이드/호산나 찬양대	안치원 유상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 자 (행 4:13-14)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초	오후 11:00	금요일초후 본당 앞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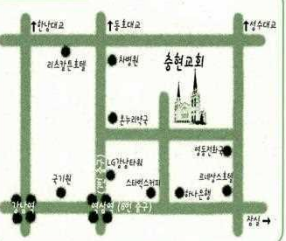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신교관 1층
	II 오전 11:00	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릴릴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회 지하 1층
에미바다부	오전 9:00(학동)	교육관 207호
	오전 1:00(성년)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세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홀
송현이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류	주간교육	송현복지관
국내장애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4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며 때때로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과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 ③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④ 매일 들며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확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수요일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도대원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 ⑧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재단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논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질로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하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엄필성 이 훈 남진우 김영길 김중구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최부길 이상호 차선득 김중남 이종식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안종욱 임두원 이갑재 진용준 정현철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이정우 김단용 황형민 한승규 김영수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김완기 원용준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김구형 최유준 이계인 박약당 이태식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정태두 박광규 권명옥 조종환 배운식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김영달 이윤호 최지훈 노영현 박철근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정경길 신상수 고재숙 강철형 김영은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이달욱 장철환 김승근 함철규 윤덕민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정선원 안석원 김언근 김장국 김준식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 부목사

- 이근태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이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고광환 김경남 김익한 장 훈 임현덕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종신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양계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세영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이경준 이창수 김준철 윤수일 황진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정성영 이창훈 김태식 김성훈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 어전도사

- 정원희 신동주 윤윤진 한영준 김언식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홍순애 이옥주 김갑자 안태순 김경연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조옥자 강덕범 최복선 전은희 김성주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김경자 이숙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한성일 임태주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오진국

■ 찬양감독 강기영

■ 전일지휘자 서준성

■ 전일감독자 김소연

■ 신 교 사 송요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회.
오전 1시에 드리는 주일 2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및 수화회 동시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